

지역 이모저모



해남군은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농촌개발추진단 신설했다. /해남군

해남군, 농촌개발추진단 신설

해남군은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농촌개발추진단을 신설하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 지역 활력 제고 등 농촌 생활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진단은 단장을 포함 10명의 인원으로, 농촌공간개발팀, 농촌활력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되었다.

이병길 농촌개발추진단장은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 회복이라는 장기적 발전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차질 없는 운영을 통해 활력 넘치는 농촌 공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사천시

“5년내 50억 투자유치기금 확보”

사천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5년간 50억원 규모의 사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후 6월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매년 10억원 규모로 2028년까지 50억원의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기업 투자 증가 대비 각종 보조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된 기금으로는 사천시에 투자하는 기업의 각종 보조금 지급, 용지매입비 지원, 성과급 지급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산청군

고독사 위험가구 반려로봇 보급

산청군은 중장년 고독사 위험가구에 반려로봇을 보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한 반려로봇은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어 말벗, 영상 통화, 복약 관리 등이 가능하다.

특히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돼 사용자에게 이상한 점이 감지되거나 사용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응급 호출을 보낼 수 있다.

군은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생활 환경 개선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고독사 예방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독사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 ‘세계 살기 좋은 도시지수’ 아시아 6위

최근 도시 브랜드 가치 급상승 英 EIU 종합평가 87점 획득 글로벌 허브 등 가치 인정받아

부산시는 영국의 대표 경제 분석 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터내셔널 유닛(EIU)이 발표한 ‘2024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지수(The Global Liveability Index 2024)’ 보고서에서 부산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아시아 6위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영국의 유력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Economist)의 산하 경제 분석 기관인 EIU는 매년 세계 주요 도시의 생활 여건과 살기 좋은 정도를 평가하는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지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평가 분야는 ▲안정성 ▲의료 ▲문화와 환경 ▲교육 ▲기반시설 총 5개 분야로, EIU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6일 2024년도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종합평가에서 87점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80점대 후반의 점수를 얻는 쾌거를 이뤘다. 순위도 지난해에 이어 아시아 6위를 사수했다.

이는 부산이 지난해 종합평가에서 80점대 후반의 점수로 ‘퀵템 점프’하게 한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이 올해까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은 2022년 종합평가에서만 해도 70점대를 받았다.

시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다

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의 도시 브랜드 매력과 가치가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으면서, 세계 유수의 도시 브랜드 평가 지수들이 부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산은 최근 급부상한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각종 세계 도시 브랜드 평가 지수에서 연이어 선전하고 있다.

부산은 최근 세계적 두뇌 집단인 지엔(Z/YEN)의 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 121개 금융 도시 가운데 27위, 세계지능형도시 지수에서 79개 지능형 도시 가운데 14위에 오르며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세계적 자문 기관인 레저넌스 컨설팅사(Resonance Consultan

cy)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최고의 도시’ 보고서에도 최초 진입해 ‘한국의 마이애미’라는 찬사를 받으며 270개 도시 가운데 67위에 오른 바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결과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 민선 8기를 시작하며 일으킨 혁신의 파동이 구체적 성과로 드러난 것”이라며 “부산은 천혜의 자연과 따뜻한 정을 가진, 이미 그 자체로 살기 좋은 도시다. 부산이 갖고 있는 도시 브랜드의 매력과 가치를 전 세계에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대구 2·28자유광장 표지물

대구시, ‘2·28자유광장’ 조성

2·28기념탑 인근 광장 표지물 제작 흥준표 시장 “새로운 대구 명소 기대”

대구시는 달서구 두류공원 중앙부에 위치한 2·28기념탑 인근 광장을 ‘2·28자유광장’으로 명명하고 3일 오전 광장 입구에 설치한 표지물 제작 행사를 가졌다.

2·28민주운동은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주도해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마산3·15의거와 4·19혁명 도화선이 됐으며 2018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2·28자유광장 표지물은 길이 14.5m, 높이 6m의 짙은 검은빛 계열의 화강석으로 장엄하고 무게감을 느낄 수 있으며, 태극기의 건곤감리를 적용해 2·28정신과 한국적 이미지를 연출했다.

흥준표 대구시장은 “앞으로 2·28자유광장 일대는 2·28기념탑과 함께 자유·민주·정의의 외친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리고,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가장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51억 융자 지원

15일부터 융자신청 접수

밀양시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 하반기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51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

자를 지원하며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시에는 신용보증 발급 수수료 1년 치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밀양시 관내 소상공인이다.

융자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받고 협약 금융기관에서 자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밀양(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구미시,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 선정

방위산업용 반도체 국산화 추진

경북 구미시가 반도체 소부장 생산 거점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3일 구미시에 따르면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 부품·소재 자립화와 국산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국방용 반도체)는 국방 분야 무기체계, 전자전 등 관련 산업의 첨단화 활용 용도에 최적화·설계·제조된 반도체를 의미한다. 무기체계에 사용하는 반도체 탑재 고신뢰성과 고성능이 필요하고 방위산업의 특성상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해 국산화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2028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산업기술원 주관으로 각 분야의 역량 있는 기관들과 함께 기반 구축, 기술 서비스, 사업화 지원, 보급확산 등 국방 반도체 부품의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사진)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을 펼친 결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DGIST 공학전문대학원 구미캠퍼스에 이어 국방 반도체까지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반도체로 대표되는 구미 미래 5대 산업 육성을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구미(경북)=김상복 기자

광주시, AI 기반 임상실증 플랫폼 만든다

산자부 바이오기술개발 사업 선정

광주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퇴행성 뇌질환 대상 임상실증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돼 오는 2028년까지 총 118억원(국비 95억원)을 투입, 퇴행성 뇌질환 대상 임상실증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조선대 산학협력단(가드코호트연구단)이 구축한 약 2만명의 아시아 최대 규모 지역기반 멀티 코호트를 활용해 ▲임상실증 맞춤형 대상자 선별 인공지능 플랫폼 ▲원격

임상시험 모니터링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가상·합성 대조군 모델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기기 등을 활용한 노인성 질환의 조기진단·예방을 이끌고 지역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등 관련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최초의 노인성질환 대상 임상실증 플랫폼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광주가 인공지능 기반 임상실증 거점도시가 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바이든, 오바마와 통화...선거 조언 들었다 /사진 뉴시스
▲ 美 국토안보부, 전세기 띄워 중국인 밀입국자 추방



▲ “유럽 13개국서 ‘우크라이나 협상으로 종결’ 전망 주류”
▲ “EU, 中 알리·테무·위인 상대로 수입 관세 부과 계획” /사진 뉴시스

▲ 프랑스 총선 후반전 앞두고 2·3위 단 일화...후보 218명 사퇴
▲ 日정부, 무인 화물운반 ‘자동 물류 도로’ 검토